

일본 2011년 노동시장 현황과 전망

김명중 (일본 닛세이키초연구소 연구원)

■ 머리말

리먼쇼크 이후 전 세계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속한 엔고 현상 등으로 인해 정체 국면에 있던 일본 경제도 서서히 회복 기미를 보이며,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등 노동시장 관련 지수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 내부에는 아직도 고용 과잉감이 잔존하고 있어, 실제로 고용환경이 개선되어 고용이 확대되는 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최근 일본 경제 및 노동시장의 현상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 일본 경제의 현상과 전망

일본 경제의 현상

엔고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개인소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2010년도의 일본 경제는 정체 국면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일본 경제는 해외경기 특히 중국 등 아시아 경기의 회복을 배경으로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어 향후 수출 및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산업성이 발표¹⁾한 2010년 12월의 광공업생산지수 속보치(2005년 = 100,계절조정치)에 의하면 일본의 광공업생산지수는 전월대비 3.1% 상승한 94.6으로 2개월 연속해서 플러스를 기록하였다(그림 1 참조). 이처럼 광공업생산지수가 회복된 이유로는 북미와 아시아용 자동차 생산이 증가한 점 이외에 스마트폰의 판매 호조로 관련 전자제품의 매출이 증가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요타 자동차의 2010년 4~12월 결산 영업이익은 2009년 같은 시기에 비해 약 8배로 크게 늘어난 4,221억 엔에 달하였다. 이처럼 영업이익이 증가하자 도요타 자동차는 지금까지 신중하게 예상해 온 2011년 3월 예상 실적을 상향 수정하고 매출액을 종전보다 2,000억 엔 늘어난 19조 2,000억 엔, 영업이익은 1,700억 엔 증가한 5,500억 엔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1] 광공업생산지수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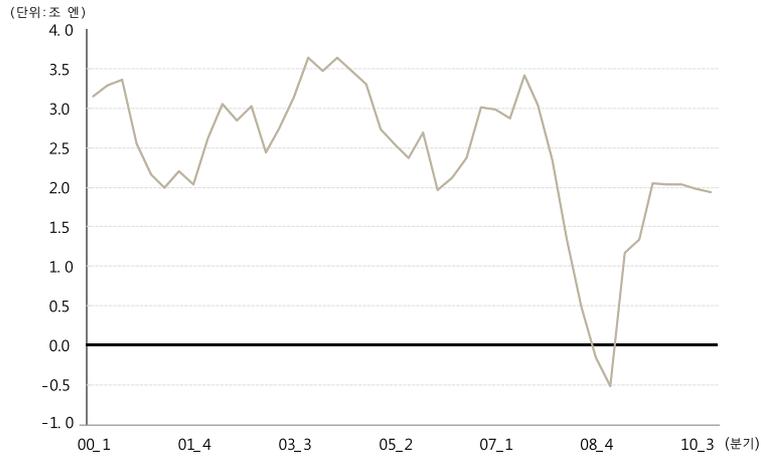


자료 : 경제산업성 홈페이지를 이용해 작성.

무역수지의 개선도 두드러지고 있다. [그림 2]는 분기별 무역수지의 동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리먼쇼크 이후 크게 저하했던 무역수지는 아시아에 대한 수출이 회복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선되어, 2010년 분기별 평균 무역수지(달러 기준) 흑자는 2조 엔에 달하였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의

1) 2011년 1월 31일 발표.

[그림 2] 무역수지의 추이 (분기별)



자료 : 재무성 「국제수지상황」.

평균금액(2008년과 2009년의 모두 1조 엔 규모)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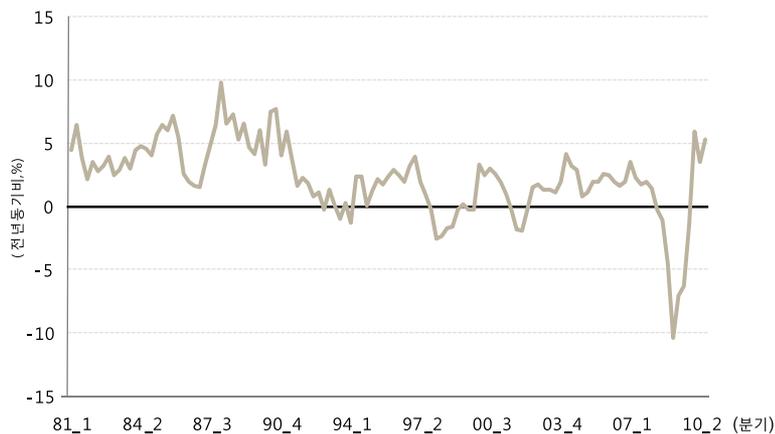
일본 경제의 향후 전망에 대한 개요

일본 경제신문의 디지털미디어종합연구데이터뱅크(NEEDS)는 2011년도의 실질성장률은 1.3%로 2010년도의 3.1%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명목성장률은 0%대에 머물러 디플레이의 압력도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2011년도의 실질성장률 중 내수에 의한 인상분은 0.8%포인트로 수출이 차지하는 인상분 0.5%포인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총생산의 절반이 넘는 개인소비는 0.7% 증가하는 데 그쳐 2010년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수출은 2010년도(17.6% 증가)보다 낮은 6.0% 증가에 머물지만,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경제의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이상의 수출 감소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기업의 경영이익은 7.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2009년도의 경기침체에 의한 반동이 컸던 2010년도의 31.5% 증가에 비하면 크게 떨어진 수치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마이너스 0.4%로 디플레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종합적인 물가동향을 나타내는 GDP디플레이터도

1.3% 이하하여 실질성장률이 명목성장률을 상회하는 현상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다(분기별 실질GDP성장률의 추이는 그림 3을 참조). 일본 경제신문의 이번 예측은 환율이 2011년 중순 무렵에 1달러에 90엔 전후가 되는 엔저 현상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라, 현재와 같이 엔고가 진행되거나 원유 가격이 기준치(1배럴=85달러)를 넘을 경우 경제성장률은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실질GDP성장률의 추이(전년동기비)



자료 : 내각부 「사분기별 GDP속보」.

■ 일본의 노동시장의 현상과 전망

최근 일본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총무성이 지난 1월 28일에 발표한 노동력 조사에 의하면 2010년 12월의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3만 명이 감소한 6,526만 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피크 시의 6,892만 명(1998년6월)보다 366만 명(5.6% 감소)이나 감소한 수치이다. 남녀별로는 남성이 3,790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만 명이 감소한 데에 비해, 여성은 2,736만 명으로 전년동월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를 시계열자

료로 확인해 보면 남성의 노동력 인구는 피크 시의 4,040만 명(1999년 1월)에 비해 6.6%나 감소한 데에 비해, 여성의 노동력 인구는 피크 시의 2,794만 명(2010년 10월)에 비해 1.3% 감소에 그쳐 노동력 인구의 감소는 남성을 중심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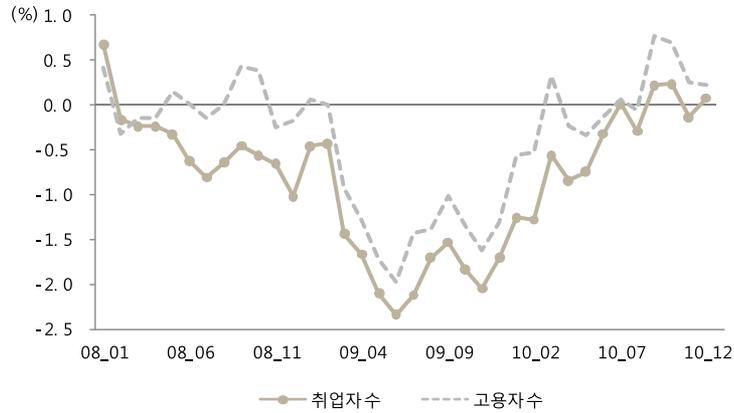
2010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9.6%로 2009년의 59.9%에 비해 0.3%포인트 감소하였는데, 이는 피크 시의 70.8%(1955년)에 비해 11.2%포인트나 감소한 수치이다. 한편 2010년 12월의 유효구인배율²⁾은 0.57배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처럼 유효구인배율이 2009년 8월 이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영향에 힘입어, 2010년의 평균 유효구인배율은 0.52배로 전년의 0.47배보다 0.05포인트 개선되었지만 과거 세 번째로 나쁜 수준을 유지하였다. 고용 정세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신규 구인배율(계절조정치)은 12월이 1.01배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개선되었다. 신규 구인배율이 1배를 넘는 것은 2008년 11월(1.02배) 이후 25개월 만이다.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5만 명이 증가한 6,228만 명(0.1%증가), 또한 고용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3만 명이 증가한 5,468만 명(0.2% 증가)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주요 산업별로는 도소매업, 운송 및 우편업의 경우 전년동월에 비해 각각 30만 명, 23만 명 증가한 데에 비해, 제조업 및 건설업은 각각 32만 명, 19만 명이 감소하였다. 한편 취업률은 56.4%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12월의 실업자수는 298만 명으로 7개월 연속해서 전년 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를 실업의 이유에 따라 구분하면 비자발적인 이직자수는 전년에 비해 23만 명이 감소한 반면, 자기사정에 의한 자발적 이직자수는 3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업의 원인이 노동수요 측에서 노동공급 측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그림 5 참조). 실업률은 전월보다 0.2%포인트 저하한 4.9%로 10개월 만에 4%대에 재진입하게 되었다. 2008년의 리먼쇼크의 영향으로 실업률은 2009년 7월에 5.6%를 기록한 후 고용 정세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2010년의 연간실업률은 5% 전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엔고와 디플레 등에 의한 경기의 불투명도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고용 정세는 당분간 일진일퇴의 상황이 계속되는 등 본격적인 개선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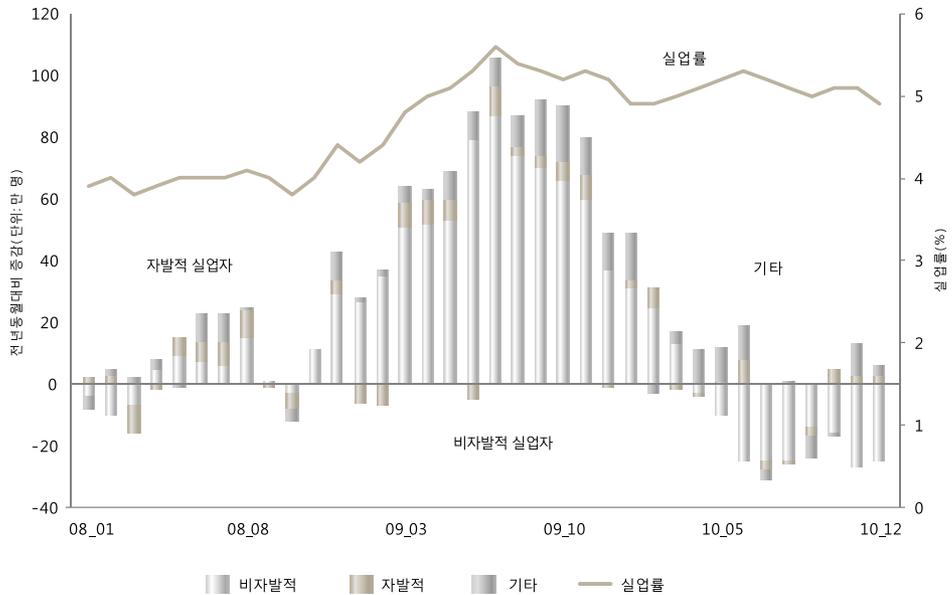
2) 계절조정치, 신규졸업자를 제외하고, 파트타임근로자를 포함.

[그림 4] 취업자수 및 고용자수의 증감률의 동향



자료 : 총무성 「노동력조사」를 이용하여 작성.

[그림 5] 사유별 실업자수 및 실업률의 동향



자료 : 총무성 「노동력조사」를 이용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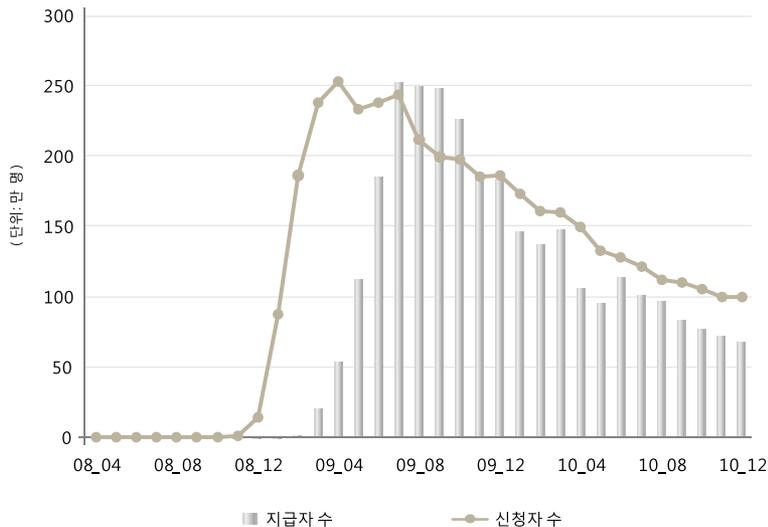
고용조정조성금과 청년층 실업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 실시되고 있는 고용조정조성금의 신청자수는 피크 시인 2009년 4월의 253만 명에서 2010년 12월에는 99.7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지급결정 대상자수도 피크 시인 2009년 7월의 253만 명에서 2010년 12월에는 67.6만 명까지 감소하였다.

이처럼 고용조정조성금의 신청자수와 지급결정 대상자수가 감소한 이유로는 2009년부터 조금씩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점과 생산 및 매출 등의 수정에 의해 고용조정조성금의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기업이 증가한 점,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대책이 강화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고용조정조성금의 실시로 인해 고용자의 고용이 단기적으로나마 유지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결과상으로 청년층의 실업 해소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즉 고용조정조성금을 이용한 기업이 줄어야만 했던 종업원, 즉 잉여인원을 끌어안게

[그림 6] 고용조정조성금 지급자수와 신청자수의 동향



자료: 雇用調整助成金等に関する'休業等実施計画届'受理状況(平成22年12月分)을 이용하여 작성.

됨에 따라, 경기가 회복해도 쉽게 신규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신규 졸업예정자의 취업내정률과 청년층의 실업률로 바로 연결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이 지난 1월 18일에 발표한 올봄 대졸예정자의 취업내정률(2010년 12월 1일 현재)은 과거 최저 수준인 68.8%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채로 졸업한 후에 다시 취업활동을 하는 이른바 취업재수생이 증가하거나, 졸업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쉬운 취업시장의 불이익을 생각하여 취업유년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처럼 취업을 하지 못하고 유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위를 모두 취득했다더라도 유년을 인정하는 희망유년제도와 학비의 감액, 기졸자에 대한 취업지도 등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도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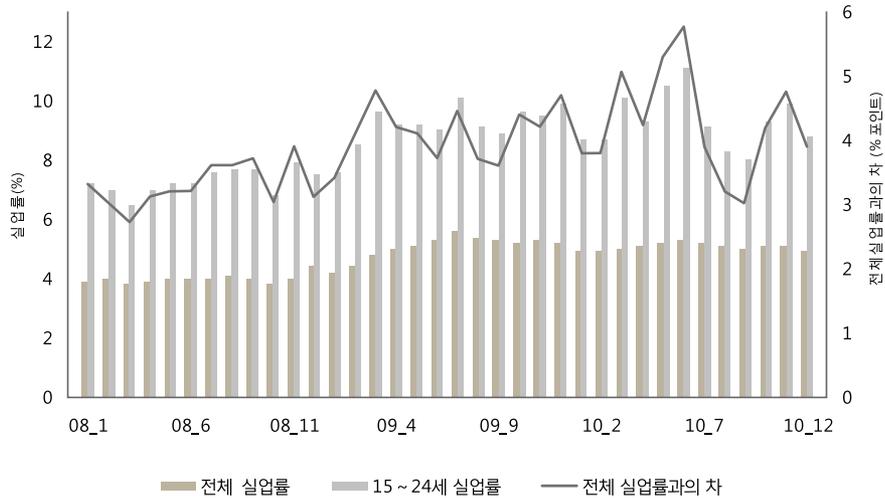
예를 들면 아오야마학원대학은 작년부터 취업유년 등의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연기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연간 약 100만 엔의 수업료를 절반으로 감액하고 진로 및 취업센터의 직원이 개별면담 등 어드바이스를 하는 제도로서 기졸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나가와 현에 위치한 쇼난공과대학에서는 작년 4월부터 취직지원특별재적제도를 도입하여 졸업에 필요한 단위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유년을 희망하는 학생은 연간 수업료 120만 엔을 22만 엔으로 감액하고 재학생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³⁾.

이처럼 각 대학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실업률은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 12월의 15~24세의 실업률은 8.8%로 11월의 9.9%보다 1.1%포인트 하락했지만, 전체 실업률 4.9%를 3.9%포인트나 상회하고 있다.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1995년 후반기 이후부터로, 1970년대에 전체 실업률과 0~1%포인트대의 차이를 보였던 청년층 실업률은 1984년을 전후로 하여 2%포인트대로 차이가 나기 시작하였고, 1995년 후반기 이후에는 그 차이가 3%포인트대로 확대되었으며, 1999년 이후에는 4%와 5%포인트대까지 차이가 벌어지게 되었다(그림 7 참조).

3) 일본 마이니치신문 2011년 1월 19일 「クローズアップ 2011 : 大卒内定率, 最低 68.8% 就職留年 支援に本腰」.

[그림 7] 전체 실업률 및 청년층실업률(15~24세)의 최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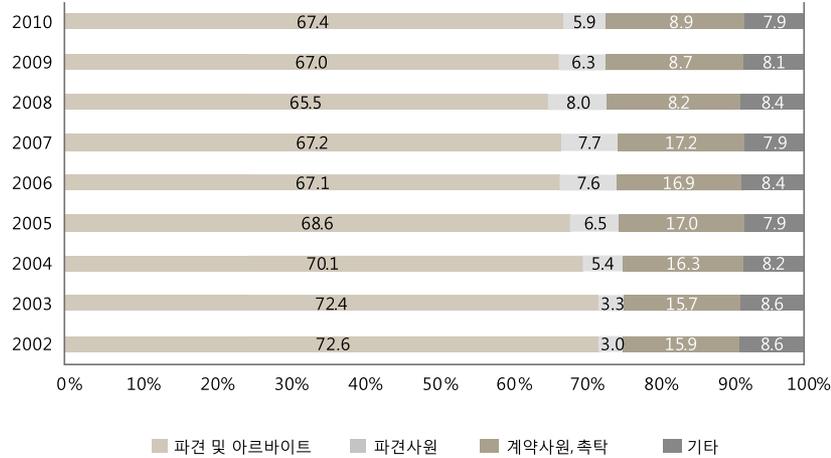
자료 : 총무성통계국 「노동력조사」를 이용하여 작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현재 일본에서는 파트타임근로자 및 아르바이트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장기적인 트렌드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배경으로는 1997년에 파견근로자의 자유화와 함께 규제완화 추진계획이 각의 결정된 점, 1999년에 파견이 원칙적으로 자유화된 점, 최근의 금융위기를 포함한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을 들 수 있다. 즉 일본의 파트타임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와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사회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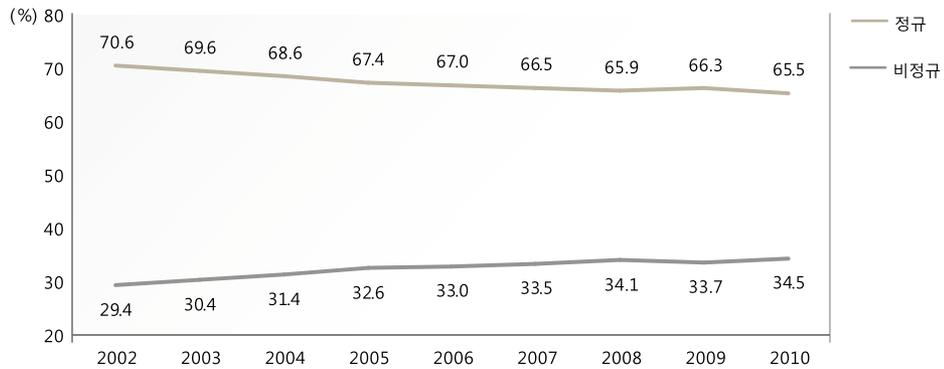
2010년 3분기(7~9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34.5%로 2분기의 34.3%보다 0.2%포인트 높아지는 등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림 8 참조). 특히 이전에 비해 감소 경향에 있던 하지만 비정규직 중 주부를 중심으로 한 파트 및 아르바이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7할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9 참조).

[그림 8]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동향



자료 : 총무성, 「노동력조사」.

[그림 9] 비정규직의 내역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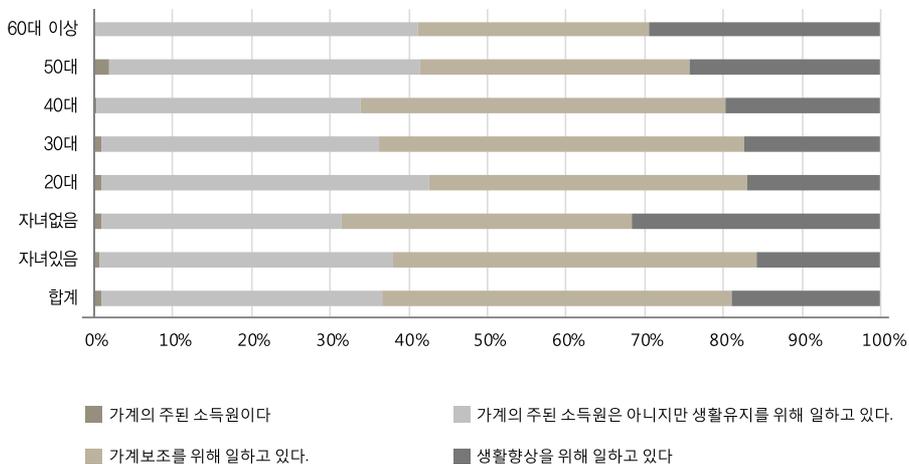


자료 : 총무성, 「노동력조사」.

한 조사⁴⁾에 의하면 주부파트가 현재 일하고 있는 목적으로는 ‘가계보조를 위해서’가 4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계의 주된 소득원은 아니지만 생활유지를 위해서’가 35.9%, ‘생활향상을 위해서’가 18.8%의 순이었다. ‘가계의 주된 소득원은 아니지만 생활유지를 위해서’ 일하는

비율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 37.3%로 자녀가 없는 경우의 30.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유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비율 역시 자녀가 있는 경우가 46.2%로 자녀가 없는 경우의 36.9%를 상회하였다. 한편, '생활향상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비율은 자녀가 없는 경우가 31.6%로 자녀가 있는 경우의 15.7%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자녀가 있는 주부파트의 경우에는 교육비 및 양육비 등을 부담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반면, 자녀가 없는 주부파트의 경우에는 보다 풍요로운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10 참조).

[그림 10] 주부파트가 일하는 목적(연령대 및 자녀 유무별)



자료 : 주식회사 아이템(2010), 「平成22年版パートタイマー白書」.

4) 주식회사 아이템 『파트타임백서』 : 본 백서는 기업에서 파트·아르바이트의 채용 및 고용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 관련 담당자에 대한 「파트·아르바이트 고용조사」와 파트·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기혼여성(이하 주부파트)에 대한 「파트·아르바이트의 근로형태에 대한 조사」의 응답 결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두 조사 모두 인터넷 조사로 실시되었으며, 「파트·아르바이트 고용조사」는 1,554개사가, 「파트·아르바이트의 근로형태에 대한 조사」는 1,030명이 조사에 응답하였다.

주부파트가 파트·아르바이트를 선택한 이유로는, ‘가사 및 육아와 일의 양립을 위해서’가 61.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개인의 편리한 시간 및 요일에 일할 수 있어서’가 60.2%, ‘부양 범위 내에서 일할 수 있어서’가 49.3%로 나타났다. 이를 자녀의 유무별로 나누어 비교하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사 및 육아와 일의 양립을 위해서’가 68.9%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양 범위 내에서 일할 수 있어서’가 6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어서’에 대해서는 자녀가 없는 경우 46.1%가 선택한 데 비해,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26.2%만이 선택하여 약 20%포인트의 차가 나는 등 근로형태의 선택 이유에 자녀의 영향력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기업이 파트·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매월 임금을 절약할 수 있어서’가 4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하루의 바쁜 시간에 대한 대응책’이 36.6%, ‘요일 및 시기적 번망기에 대한 대응책’이 34.1%, ‘정사원에 비해 채용하기 쉬워서’가 31.1%의 순이었다. 주부파트에 대한 개인조사에 의하면 주부파트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으로는 ‘사무직’이 2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직’이 23.2%, ‘판매 및 영업직’이 13.4%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다시 연령대별로 보면 ‘의료 및 간호직’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무직’의 경우에는 20대가 17.8%, 30대가 28.2%, 40대가 34.9%, 50대가 28.3%, 60대 이상이 11.8%로 40대까지는 연령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업의 58.7%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채용할 때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그 이외의 모집방법으로는 ‘종업원의 소개(35.3%)’, ‘신문짜라시 구인광고(28.0%)’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한편 개인이 전직할 때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정보매체 및 방법으로는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가 5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문짜라시 구인광고(50.3%)’, ‘무료구인정보지(50.2%)’의 순이었다. 주부파트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소의 각각 51.1%와 56.0%가 파트·아르바이트의 승급제도와 정사원 등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승급제도는 ‘음식점 및 숙박업(71.2%)’, ‘소매업(67.4%)’, ‘금융·보험·부동산업(58.1%)’의 순으로 많이 실시되고 있었으며, 정사원 등용제도는 ‘의료 및 복지업(71.1%)’, ‘소매업(65.8%)’, ‘빌딩관리·경비업(64.9%)’의 순으로 많이 실시되었다.

주부파트의 약 1/3(33%)은 기회가 있다면 향후 정사원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하였는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41.6%, 30대가 38.1%, 40대가 28.1% 등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정사원 지향이 높게

〈표 1〉 파트 및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이유 (자녀유무별)

		가계의 주된 소득원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주된 소득원은 아니지만 가계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학비와 오락비를 벌기 위해	자격 및 기능을 살리기 위해	이전의 취업 경험을 살리기 위해	삶의 보람 및 사회 참여를 위해	시간이 남아서	육아를 끝내서	기타	불명
2006년											
파트타임 근로자	전체	22.7	53.9	31	8.9	9.6	30.8	23.9	21.3	7.1	0.6
	남성	43.6	16.3	38.3	11.6	11.8	26.9	24.7	3.5	9.8	0.4
	여성	15.5	66.8	28.5	8	8.9	32.1	23.6	27.4	6.2	0.7
기타	전체	51.6	32.3	25.3	13	16.3	27.7	10.3	8	8	0.9
	남성	73.3	11.3	18.1	11.3	19.5	23.9	10	3.3	8.7	0.6
	여성	30.4	52.7	32.3	14.6	13.2	31.4	10.7	12.6	7.3	1.2
2010년											
파트타임 근로자	전체	47.3	53.1	...	6.4	6.8	23.6	22.9	17.2	7.5	0.1
	남성	62.6	32.1	...	8.2	8.7	19	24	1.1	13.1	0
	여성	42.6	59.6	...	5.8	6.2	25	22.6	22.2	5.8	0.1
기타	전체	69.9	32	...	10.5	11.2	20.1	8.7	6.8	6.9	0
	남성	81.2	19.2	...	10.4	15.8	16.3	6	1.2	7.2	0.1
	여성	61.6	41.5	...	10.5	7.8	23	10.8	10.9	6.7	0

자료 : 주식회사 아이템(2010), 「平成22年版パートタイマー白書」.

나타났다. 또한 향후 단시간 정사원제도가 정비될 경우, 주부파트의 59.6%가 단시간 정사원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부파트의 상당수는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일과 생활의 양립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일본 정부가 노동시장에서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시간 정사원제도를 포함한 보다 다양한 노동시장정책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응답기업의 약 47.4%는 향후 주부파트가 정사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긍정

적인 반응을 보여, 주부파트가 정사원의 대체노동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즉 정사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개선하여 그 일부를 주부파트 등에 담당하게 하는 것에 의해 정사원 특히 남성 정사원의 근로시간의 단축과 기업의 인건비 절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의 노동시장 변동에 대한 예측

국제통화기금(IMF)은 경기순환에 대한 일본의 노동시장 변동에 대한 연구 결과를 지난 12월에 발표하였는데, 여기서는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실업률이 5% 전후를 넘나들고 있지만, '리먼쇼크' 이후 미국의 실업률이 6% 전후에서 10%를 넘어선 점과, 유럽연합이 7.0%에서 9.5% 전후로 상승한 점을 들면서 국제적인 수준에서 볼 때 결코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 변동에 대해서는 산업, 기업규모,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산업별로는 원래 쇠퇴 경향에 있던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한 반면, 의료서비스와 정보통신산업에서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규모별 취업자수의 변화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영향을 많이 받은 반면, 1,000인 이상의 고용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남성 고용자의 연령별 고용상황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일수록 취업자의 감소가 크고, 30대 후반부터 50대 전반은 취업자수에 커다란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과 고용의 관계를 나타내는 오쿤의 법칙을 응용하여 각국의 노동시장이 경기순환에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 다른 OECD가맹국에 비해 일본의 노동시장은 경기 변동에 대해 고용 변동이 작은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번 금융위기로 인한 고용자 1인당 생산량의 변화를 보면, 일본의 경우 생산량은 리먼쇼크 이후인 2008년 3분기에 크게 하락한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근로자 1인당 생산량이 저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일본은 생산활동이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자수에 크게 변동이 없는 점을, 미국은 생산활동이 축소됨에 따라 노동력을 삭감한 점을 주된 원인으로 들었다. 즉 일본의 경우에는 고용 축소보다는 임금 삭감을 중심으로 불황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일본 노동시장의 특징으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고용 변동이 작은 점을 들었는데, 그 이유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용 변동에 비해 일본의 임금소득이 크게 변동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고용 변동의 폭은 매년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비정규 근로자의 증가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실제로 일본의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산업이나 기업일수록 고용 변동이 크다고 하는 결과가 얻어졌으며, 이번 불황에 의한 고용 감소도 지금까지의 불황시의 변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춘투에 의한 임금인상과 고용자 보수의 예상액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소득환경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춘투⁵⁾의 동향이 주목을 모으고 있다. 노사 양측은 정기승급을 유지하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지만, 정기승급을 넘는 임금인상에 대해서 경영자 측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임금인상률의 확대도 소폭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간 조사기관인 노무행정연구소가 올 춘투의 전망에 대해서 노사 양측에 앙케이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정기승급을 포함한 임금인상의 예측액은 평균 5,316엔(임금인상률 1.72%)으로 지난해의 주요 기업의 임금인상 실적보다 200엔 정도가 낮아졌다⁶⁾.

조사는 작년 12월에서 올해 1월에 걸쳐, 상장기업의 노무담당, 노동조합 위원장, 학식 경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총 451명이 응답하였다. 임금인상의 예상 평균액은 노동조합 측이 5,345엔, 경영자 측이 5,356엔으로 거의 일치하였으며, 연령 등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정기승급은 경영자 측의 84.6%가 '실시할 예정'이며, 근로자 측의 88.6%가 '실시해야만 한다'고 응답하였다. 임금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베이스업에 대해서는 경영자 측의 71.3%가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근로자 측의 57.7%도 '실시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동 연구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업적은 회복단계에 있지만 베이스업을 실시할 체력

5) 춘계 투쟁의 약어로 매년 봄이 되면 각 노동조합이 보조를 맞춰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공동투쟁이다.

6) 노무행정연구소 2011년 1월 27일 발표.

은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노사 간에 공통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2011년도 정부 경제전망에 의하면, 임금 등의 총액을 나타내는 고용자 보수는 전년도에 비해 1.1% 증가하여 2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고용을 증시킨 예산과 세제의 정책효과를 반영하여, 고용자수가 0.7% 증가하고, 고용환경개선이 민간 수요에도 영향을 미쳐, 1인당 고용자 보수는 0.4%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단, 고용자 보수 총액은 세계 동시불황의 영향으로 2009년도에 3.6% 감소한 상태로, 2011년도 예상액(256조 엔)도 2008년도의 고용자 보수 총액 260조 엔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맺음말

민주당의 칸 나오토 수상은 작년 9월 민주당 대표선거에서 첫 번째도 고용, 두 번째도 고용, 세 번째도 고용이라는 고용대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고용관련 대책을 실시해 오고 있지만 아직 뚜렷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엔고 현상이 장기화하고, 내수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은 설비가 노후화되고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중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지방공장을 폐쇄하고 소비가 활발한 신흥국에서 생산활동을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증가하고 있어, 향후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고용자가 감소하는 등 일본의 노동시장은 더욱 축소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10년 12월 말 현재의 제조업 근무자는 979만 명으로, 2002년 12월 말의 1,106만 명에 비해 127만 명이나 감소하였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법인세를 5%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기업이 고용을 확대하고 일본내 투자를 확대해 주기를 호소하고 있지만, 법인세 감세분이 고용 및 투자를 위해 어느 정도 사용될지는 미지수이다. 실제로 법인세 감세분의 사용처에 대한 사전조사⁷⁾에 의하면 내부유보와 차입금의 변제가 각각 25.6%와 16.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인원 증강은 8.6%에 불과하였다.

7) 제국데이터뱅크가 2010년 7월에 실시, 조사대상 22,557개사 중 유효응답기업수는 11,446개사(응답률 50.7%) 「特別企画調査：法人課税の実効税率等に対する企業の意識調査」.

2011년의 일본 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함께 수출이 증가하는 등 정체 국면을 벗어나 회복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기업 내부에 고용 과잉감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일본 기업의 상당수가 큰 폭의 투자 및 고용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고용과잉감은 생산 및 수출이 확대되면서 조금씩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를 불식시키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일본 정부의 고용관련 대책과 기업의 고용 동향이 주목되는 바이다. **KLI**